

출판 경기가 어렵다고들 합니다. 그렇지만 남다른 소명의식으로 무장해 자신만의 '꿈'을 펼쳐보려는 출판인들은 끝없이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출판저널>은 출판에 대한 꿈과 희망을 버리지 않고 출사표를 내민 새내기 출판인들의 목소리를 담으며 우리 출판문화의 또 다른 가능성을 찾아보려 합니다. (편집자 주)

새내기 출판사들의 출사표!

삼프로출판사

판매수익의 3% 청소년을 위해 기부
성교육 등 청소년 전문 출판사 지향

지난해 연말부터 출판계에 수익의 일정 금액을 사회에 환원하거나 불우이웃을 돕는 데 회사하는 등 나눔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재활전문병원에 모든 판매 수익금을 후원한 출판사도 있었고, 아름다운재단의 '1% 나눔운동'에 동참하는 출판사와 서점도 있었다.

올해 초 출판을 시작한 '삼프로출판사'는 아예 회사 이름에서부터 나눔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유도순 대표를 비롯 삼프로출판사에 동참한 구성원들이 모두 청소년에 관심을 가졌던 터라 판매수익의 3%를 청소년을 위해 기부하는 것

을 원칙으로 세웠다. 주운돈 이사는 "책을 읽는 사람이 아름답다고 한다면 책을 만드는 사람은 아름다움을 만든다고 할 수 있다"면서 "책의 내용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사회의 어두운 곳과 청소년을 위해 3%의 판매수익을 기부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 첫 실천으로 삼프로출판사는 (사)청소년문화세상(이사장 박원규)과 지난 6월 8일 청소년들을 위한 후원협정을 맺어 도서 판매 수익금의 3%를 기부하기로 했다. 이 후원협정으로 조성되는 후원금은 저소득층 청소년 급식지원 등 청소년 복지 및 청소년 보호, 문화활동 사업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청소년 후원에 앞장서는 것만큼이나 삼프로출판사가 지향하는 책의 방향도 청소년을 지향한다. 삼프로출판사가 처음 출간한 책은 국내 첫 여성 비노기과 교수인 이대목동병원 윤하나 박사의 《우리 터놓고 말해 볼까?》와 《넌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이다.

《우리 터놓고...》는 남학생을 위한 청소년 성교육 도서이고, 《넌 다 알고...》는 여학생을 위한 청소년 성교육 도서이다. 수많은 성교육 도서가 출간되고 있지만, 시대에 뒤떨어진(?) 내용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삼프로출판사가 출간한 책은 다년간 비노기과 전문의로 활동하며 올바른 성을 알리기 위해 동분서주한 필자와 현직 보건 교사가 감수한 책이어서 각급 학교 성교육 교재로 안성맞춤이라는 것이 주운돈 이사의 설명이다.

삼프로출판사는 청소년과 건강 부



분에 집중할 계획이다. 유도순 대표는 “청소년을 위한 것, 사회 어두운 곳을 밝혀 줄 수 있는 책을 출판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고 청소년들이 좀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만화와 전자출판으로 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라면서 “아울러 성인들이 지나치기 쉬운 질병과 건강, 부부 사이의 성에 관한 책도 출판할 계획”이라고 말한다.

삼프로출판사는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라는 경구를 믿는다. 노력하는 만큼, 기도하는 만큼 출판 시장과 환경이 열릴 것이라는 믿음이다. 큰 욕심 내지 않고 사회의 어두운 곳을 밝히는, 청소년들을 위한 초심을 잃지 않는다면 험난한 출판시장에서도 길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한다. 삼프로출판사가 시작한 3%를 기부하는 출판사로 시작했지만, 그보다 더 많은 판매수익을 청소년들을 위해 기부하는 출판사로 자라기를 소망해 본다.

취재_ 정동석 기자

여러누리는 ‘여럿이 함께 나누는 세상’이라는 뜻과 ‘다양한 세상’이란 뜻이 담겨 있는 이름이다. 장르에 구애받지 않고 평범한 독자들이 읽을 수 있는 다양한 책들을 내고자 하는 모토가 담겨 있기도 하다. 그럼에도 굳이 조금 더 집중하려는 분야가 있다면, 문학과 어린이·청소년 도서이다. 특히, 시나 소설이 장사가 잘 되지 않는 요즘 같은 시기에 문학 분야에 주력하겠다는 것은 작가로서의 이 대표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것이다.

여러누리는 2006년에 《검궁인 삼국지》(전10권)과 《소설 이상》을 출간하였다. 1993년 월간 〈현대시〉를 통해 시인으로 등단하였으며 현재 무협소설작가인 검궁인의 《삼국지》는 《삼국지연의》를 무협 스타일로 재창작한 역사무협소설이다. 《삼국지연의》의 재미에 무협 스타일의 박진감과 속도감이 더해진 것이 특징이다. 저자는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소설’을 목표로 이 책을 썼다. 《삼국지연의》의 장점인 줄거리나 주요 등장인물의 갈등과 전투, 지략 싸움은 부각시키고 현학적이어서 어렵고 부담스럽다는 단점은 줄여 쉽고 빠르게 읽히면서 재미있는 《삼국지》로 새롭게 재창작했다.

이진우 대표가 직접 쓴 《소설 이상》은 기존에 ‘이상’을 보던 전형적인 시각에서 탈피한 새로운 인물상을 그려낸다. 그는 이상에 대한 평가는 접어두고 이상의 작품과 연보와 이상에 대한 기록들을 비교해 가며 이상의 연대기를 소설 형식으로 꾸몄다. 이상의 작품을 통해 당대의 현실을 읽어내려 노력하였고, 새로운 이상의 모습을 형상화해 냈다. 참담한 현실을 이겨내려 한 너무나 눈물겨운 생활인 ‘이상’의 모습이 그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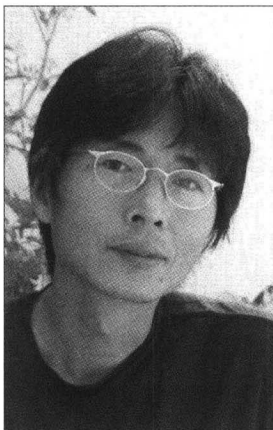
최근 출판계에 경기 불황의 여파가 오래 가고 있지만, 여러누리는 주위 환경에 관계없이 매달 한 권씩이라도 꾸준히 책을 내겠다는 다부진 목표를 가지고 있다. 당장 7월 초순에 청소년과 어른을 위한 동화 《아프리카: 코끼리의 전설》과 7월 중순쯤 번역소설 한 권을 출간할 계획을 갖고 있다.

여러누리는 이제 막 발걸음을 내딛은 소규모 출판사이지만, 이 대표의 출판에 대한 애정과 포부만큼은 결코 작지 않다.

“이전에는 내 가족의 행복 위주로 살았지만, 앞으로는 출판을 통해 사회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여러누리

여럿이 함께 나누는 세상을 꿈꾸다



여러누리의 이진우 대표는 출판사를 창업하기 전에 전업작가였다. 사회 생활을 한 기간은 전자책 출판사 초록매(바로북의 전신)에서 인터넷 부문 담당자로, 문학세계사에서 기획실장으로 있던 1년이 전부이다. 1989년에 시인으로 등단해, 시집으로

《슬픈 바퀴벌레 일가》, 《내 마음의 오후》가 있고 장편소설 《적들의 사회》, 《인도에 딸을 묻다》, 《소설 이상》 등이 있으며 산문집으로 《저구마을 아침편지》를 냈다.

자연히 작가로서 출판계와 맺은 인연이 많았다. 그런 그가 출판사를 시작하게 된 것은 “불혹을 넘기면서 가족과 사회를 위해 글 쓰는 일 이외에 의미 있는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삶을 살려고 합니다. 여러누리라는 이름에 걸맞게 모두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면서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담은 책을 내고 싶습니다.”

취재_ 김지희 기자

정신의서가

인생을 결정짓는 훌륭한 책, 정신의 서가에 보존해야



“일반적으로 출판시장 발전 가능성에 부정적인 견해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낙관론으로 일을 시작했어요. 경제가 발전한 만큼 문화수준도 올라가거든요.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볼 때 분명 향후 문화산업 또한 증진될

겁니다.”

책이 좋아 무작정 뛰어들었다는 첫마디의 겸손과 달리 박운범 대표의 말에는 힘이 넘쳤다. 경제학을 전공했고 대기업 해외 마케팅과 전략기획부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후 컨설팅회사를 직접 꾸리기도 했다. 출판과 전혀 상관없는 분야에서의 경력이지만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하고 접근할 수 있는 객관적 시각은 출판경영자의 입장에서선 장점으로 작용한다.

이제 막 두 권의 책을 펴낸 출판사 ‘정신의서가’는 철학 인문서 전문출판사로 행보를 결정했다. 박대표는 국내 번역된 철학서를 거의 다 독파했다. 자연스레 책 출판과 번역 시장에 관심이 모아졌고, 꼼꼼한 사전 준비 끝에 ‘잘 할 수 있는 것’과 ‘경험이 필요한 것’을 분리할 수 있게 됐다. 이제 막 독자들을 만난 두 권의 책이 정통 철학서는 아니지만 인문 교양서라는 점에선 출간방향과 무관하지 않다.

“욕심과 의도만을 고집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씩 배워가면서 여유를 갖고 노력할 생각입니다.”

첫 책 《여자와 남자 그리고 알코올》은 여성과 남성의 음주이유 및 그들의 심리 차이를 다룬 책으로

여성독자들의 꾸준한 반응을 얻고 있으며, 지난달 출시된 소설 《사무실 블랙 스케치》는 프랑스에서 3백만 조회수를 돌파한 블로그 소설로 셀러리맨들의 블랙유머가 독특한 느낌을 전달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현재 우리나라에 나온 철학서들은 대개 20세기 후반 철학과 일본서 중역본이 주를 이룬다. 박대표는 진지한 삶의 성찰을 다룬 인문서와 철학 고전을 제대로 된 번역본으로 내고 싶은 소망이 있다. 책의 본질적 가치를 지닌 좋은 책을 장기적으로 출간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출판사 운영’이라는 것이 녹록치 않지만 자신의 이름으로 책이 나온다는 것 자체에 보람을 느낀다. 출판에 대한 식견과 애정을 지닌 경력 15년 차의 베테랑 영업부장도 한 식구로써 든든한 지원을 해주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책을 보통 책장에 보관하잖아요. 하지만 책은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용의 본질과 그 책을 쓴 사람들의 생각을 내 머리에 옮겨 보관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늘 읽은 책 뒷장에 ‘이 훌륭한 책을 내 정신의 서가에’라고 썼었죠. 그 문장을 줄인 것인데, 궁극적으로 우리 출판사의 지향점이 드러나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올 여름 ‘정신의서가’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세권의 책이 독자를 만날 예정이다. 인문철학서와 프랑스작가의 산문집으로 구성했다.

“처음 일을 시작할 때 사실 재정적으로 고민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책이 주는 교훈에 힘을 얻게 됐습니다. 저를 포함해 출판인들이 새로운 시스템, 새로운 사고로 출판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취재_ 송보경 기자